

의과대학 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특성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¹,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²

김은경 · 양은배¹ · 김세진²

= Abstract =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Eun Kyung Kim, PhD, Eun Bae Yang¹, PhD, Se Jin Kim², BA

Institute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¹,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Education²,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Medical students are exposed to var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patients, faculty and colleagues. Therefor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ir personality typ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s vital in creating an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Methods: The Myers-Briggs type inventory (MBTI) and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were used to assess the first-year medical students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006.

Results: The personality types focusing on the interpersonal domain showed that the medical student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nalytical type (47.2%), driving type (30.3%), amiable type (12.4%), and expressive type (10.1%).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data were within normal r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indicat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traversion-introversion.

Conclusion: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ersonality factors of medical students are correlated to the interpersonal problems they face. Thus, educational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personality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are crucial in providing high-quality medical education.

Key Words: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type, MBTI

교신저자: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02)2228-2511, Fax: 02)364-5450, E-mail: nara@yumc.yonsei.ac.kr

* 이 연구는 2005년도 한국의학교육학회 연구장려상으로 이루어졌음.

서 론

교육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 가운데 학습자의 특성은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적되어 왔다 (Ellis, 2003).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능, 동기, 학습양식, 사고양식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학생 개인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특성으로 성격유형에 대한 연구들도 지속되어 왔다. 선행 연구 결과들은 성격유형이 학생들의 교육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상호간의 행동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가져오는 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Myers & McCaulley, 1985). 따라서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대인관계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방법 및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격유형검사(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Jung의 성격유형 이론을 근거로 Myers & Briggs가 1941년에 개발한 인간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성격유형검사는 개인차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틀로서, 대인간 상호작용을 조망할 수 있는 인간이해의 체계로써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와 건설적 조직 문화를 촉진하는 조직개발의 도구로써 그 유용성이 증명되었다 (Hammer, 1996).

개인 간의 상호작용 행동과 특성, 그리고 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이다 (Horowitz, 1996). Sullivan (1953)은 개인의 삶을 특징짓는 반복적인 대인관계 상황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성격으로 정의하였다. Sullivan의 대인관계 이론은 여러 학자에 의하여 구체화되었으며, Leary (1957)는 통제 (dominance vs. submission)와 친애 (love vs. hate)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원형이론을 제시하였다. Leary는 대인관계 특성을 열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여덟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Horowitz *et al.* (1988)은 Leary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최신 이론들 (Horowitz & Vitkus, 1986; Kiesler, 1983;

Orford, 1986; Wiggins, 1979, 1982, 1995)을 발전시켜 대인관계문제검사 (IIP: Intenvory of Interpersonal Problems)를 개발하였다. 대인관계문제검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밝히기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Kim *et al.*, 2002).

성격유형과 대인관계 행동 특성의 관계를 연구한 Lim (2002)은 대인관계 중심의 행동유형 (외향-사고, 외향-감정, 내향-감정, 내향-사고)에 의한 성격유형론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성격유형검사의 외향-내향 (extraversion-introversion), 사고-감정 (thinking-feeling)의 두 차원과 대인관계 원형이론에서 통제, 친애의 두 축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수학습 방법 및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성격유형과 대인관계 문제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성격특성과 행동의 개인차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학생들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 행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대인관계 이외에도 향후 의사로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환자 및 동료 등과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의사의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은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며 환자의 건강증진과 관련된다 (Rider, 2006). 따라서 의과대학 학생들은 다른 직업보다 자신의 행동특성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의과대학 학생의 성격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전공선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교육방법 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Kwon & Kim, 2002; Kim, 1999; Kim *et al.*, 2005; Hwang, 2004; Molidor, 2002; Wallick & Cambre, 1999), 의과대학 학생의 성격유형 분석에서 대인관계 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첫째, 성격유형검사 (MBTI)와 대인관

Table I. Frequency of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type	Frequency (%)	Personality type	Frequency (%)
Extraversion (E)	36 (40.45)	Thinking (T)	69 (77.53)
Introversion (I)	53 (59.55)	Feeling (F)	20 (22.47)
Sensing (S)	56 (62.92)	Judgement (J)	62 (69.66)
Intuition (N)	33 (37.08)	Perception (P)	27 (30.34)

계문제검사(IIP)를 활용하여 의과대학 학생의 성격 유형과 대인관계 문제의 특성 분포를 분석하고, 둘째, 의과대학 학생의 성격유형과 대인관계 문제 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2006년 2월 13~14일에 성격유형검사(MBTI)와 대인관계문제검사(IIP)를 실시하였으며, 103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두 가지 검사에서 미응답 문항이 많은 사례를 제외하고 남학생 59명(66.3%), 여학생이 30명(33.7%) 등 총 8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성격유형검사는 Myers & Briggs가 개발한 성격유형검사를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번역한 자가체점형 성격유형검사 도구인 MBTI-GS형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성격유형을 태도의 외향성과 내향성 지표, 인식과정의 감각과 직관 지표, 판단과정의 사고와 감정 지표, 대처양식의 판단과 인식 지표 등 네 가지 선호경향을 바탕으로 열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Kim & Sim, 1987).

대인관계문제검사는 Horowitz *et al.* (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를 Kim *et al.* (2002)이 번역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

관계 원형모형에 근거하여 통제지배(domineering), 자기중심성(vindictive), 냉담(cold), 사회적 억제(socially avoidant), 비주장성(nonassertive), 과순응성(exploitable), 자기희생(overly nurturant), 과관여(intrusive) 등의 여덟 가지로 분류한다. 대학생(N=1,460)과 성인(N=1,474)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Cronbach 내적합치도(α)는 .69~.93으로 높은 편이며, 문항 간 상관평균은 .24로 문항들이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표준 T점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9~.84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대인관계 문제의 특성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성격유형별로 대인관계 문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문제 특성 구성요인에 대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특성별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대인관계 문제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와 .01 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PSS WI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가. 학생들의 성격 유형

의과대학 학생의 성격유형 분포는 Table I과 같이 나타났는데, 태도지표(ED)에서는 내향성(I)이 59.55%로 외향성(E)보다 많았으며, 인식과정(SN)에서는

Table II. Frequency of Personality Types Focused on Interpersonal Domain

Personality types*	IT	IF	ET	EF
Frequency (%)	42 (47.19)	11 (12.36)	27 (30.34)	9 (10.11)

* IT: Introversion-Thinking, IF: Introversion-Feeling, ET: Extraversion-Thinking, EF: Extraversion-Feeling.

Table III. Descriptive Stat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Interpersonal problems	Mean	SD	Interpersonal problems	Mean	SD
C1. Domineering	51.22	7.93	C5. Nonassertive	50.25	9.70
C2. Vindictive	53.96	9.20	C6. Exploitable	50.55	11.09
C3. Cold	49.03	9.91	C7. Overly Nurturant	43.01	9.65
C4. Socially Avoidant	51.49	7.74	C8. Intrusive	43.13	8.37

Table IV. Comparison of Interpersonal Problems between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types	N	M	SD	F
IE: Introversion	53	50.92	9.95	7.81*
Extroversion	36	45.14	9.01	
SI: Sensing	56	48.05	9.27	.43
Intuition	33	49.48	11.10	
TF: Thinking	69	47.88	9.39	1.53
Feeling	20	51.00	11.61	
JP: Judgement	62	48.03	8.36	.63
Perception	27	49.85	12.98	

*: $p < .05$

감각형 (S)이 62.92%로 직관형 (N)에 비해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판단과정 (TF)에서는 사고형 (T)이 77.53%로 감정형 (F)보다 많았으며, 대처양식 (JP)에서는 판단형 (J)이 69.66%로 인식형 (P)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Table II 성격유형 검사의 태도지표 및 판단과정의 지표를 조합하여 대인관계 중심의 행동유형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분석형 (IT)의 행동유형이 47.19%로 가장 많았고, 주도형 (ET)의 행동유형이 30.34%, 우호형 (IF)의 행동유형이 12.36%, 표출형 (EF)의 행동유형이 10.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대인관계 문제 특성의 분포

의과대학 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특성 분포를 나타낸 Table III을 살펴보면, 여덟 가지 대인관계 문제 특성 평균값이 43.01~53.96점으로 표준 T점수의 표준편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검사에서 표준 T점수는 대학생 (전체 1,460명; 남자 677명, 여자 783명) 표준화 표본을 근거로 한 것으로 평균이 50, 표준편차는 10이다. 그러나

Table V. Descriptive Stat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Interpersonal problems	I (n=53)		E (n=36)		F
	Mean	SD	Mean	SD	
C1. Domineering	50.25	7.16	52.67	8.86	5.18*
C2. Vindictive	54.89	11.73	50.11	11.75	1.63
C3. Cold	51.42	10.05	45.53	8.70	4.68 *
C4. Socially avoidant	54.45	7.07	47.14	6.62	16.25 [†]
C5. Nonassertive	52.60	9.14	46.78	9.57	2.05
C6. Exploitable	51.55	11.72	49.08	10.09	.95
C7. Overly nurturant	45.04	9.61	40.03	9.03	6.49*
C8. Intrusive	43.47	8.87	42.64	7.68	.09

* p<.05, [†]p<.01

Table VI. Comparison of Interpersonal Problems per Personality Types Focused on Interpersonal Domain

Personality types	N	M	SD	F	Post hoc.
IT: Introversion-Thinking	42	49.98	9.19		
IF: Introversion-Feeling	11	54.55	12.25	3.37*	IF > ET
ET: Extraversion-Thinking	27	44.63	8.90		
EF: Extraversion-Feeling	9	46.67	9.68		

* p<.05

의과대학 학생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덟 가지 특성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통제지배 (C1), 자기중심성 (C2), 사회적 억제 (C4) 특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자기희생 (C7)과 과관여 (C8) 척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 성격유형검사의 선호지표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특성

성격유형검사의 선호지표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특성을 분석한 Table IV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격유형의 태도지표에서만 대인관계 문제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V는 차이가 나타난 성격유형의 태도 지표 중 어떤 대인관계 문제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인데, 통제 지배 (C1), 냉담 (C3), 사회적 억제

(C4), 자기희생 (C7)과 관련된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된 통제지배 (C1) 특성에서는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나 애정 등의 경험이나 표현, 동정심이나 배려, 관용, 온정 등과 관련된 냉담 (C3) 특성에서는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더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소심하고 당황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억제 (C4) 특성과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책임감, 과양육 및 대인관계에서의 지나친 허용성이나 배려 등과 관련된 자기희생 (C7) 특성에서도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라. 성격유형검사의 행동유형 지표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특성

성격유형검사에서 대인관계 중심의 행동유형(IT, IF, ET, EF)과 대인관계 문제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Table VI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중심의 행동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 특성의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대인관계 행동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인지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호형(IF)와 주도형(ET)의 행동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

고 찰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결점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관계된 것으로 Chickering & Reisser (1993)는 이것이 대학시기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곱 가지 발달과업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특성을 분석하여 교수·학습방법 및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선호지표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내향성(I), 감각형(S), 사고형(T), 판단형(J) 유형에서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포는 Kim (1999)과 Kim *et al.* (200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성격유형 연구를 수행한 Kim & Sim (1990), Lee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격유형은 ESTJ 또는 ISTJ이며,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성격유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대인관계 행동유형별 관점에서 살펴보면, 분석형(IT)이 47.19%로 가장 많았고, 주도형(ET)이 30.34%로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Lee (1999)는 일반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행동유형별 분포는 주도형(ET) 35.3%, 분석형(IT) 27.7%임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학생들은 일반 대학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대인관계 행동유형보다도 특정 행동유형(분석형)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im (2002)은 분석형과 주도형의 대인관계 행동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분석형(IT)의 대인관계 행동유형을 가진 학생들은 내향적이면서 과업적 성향이 강하다. 이 유형은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경쟁하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원칙과 체계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력과 분석적 사고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대인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를 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형이다. 주도형(ET)의 대인관계 행동유형을 가진 학생들은 대인간 상호작용을 즐기는 사교성 보다는 과업지향적 경향성이 두드러지며 행동력이 강한 외향성을 보인다. 이 유형은 경쟁이 전제된 상호작용에서는 직선적이고 지배적 성향이 증폭되어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 특성은 검사 척도의 기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대인관계 문제 특성에서 정상범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 학생들은 통제지배(C1), 자기중심성(C2), 사회적 억제(C4) 등의 특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자기희생(C7)과 과관여(C8) 척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대인관계 행동유형별 분포 결과와 관련지어 보면, 의과대학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며, 대인관계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집단에 참여하는데 상대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유형별 대인관계 문제 특성과 관련하여 통제지배(C1) 특성에서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냉담(C3), 사회적 억제(C4), 자기희생(C7) 특성에서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Day & Batson (1995)은 내향적인 학생들이 토론 등의 면대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Kim *et al.* (1995)은 외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관심을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쏟으므로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부세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향력을 증대하고 싶어 하며, 내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외부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하므로 사려 깊고 주위와 떨어져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고, 고독과 사생활을 즐기는 특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내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은 토론 등의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는 대인관계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성격유형검사의 대인관계 중심 행동유형과 대인관계 문제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우호형 (IF)의 행동유형이 주도형 (ET)의 행동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우호형 (IF)은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시간을 늦추고, 타인의 심리적 반응을 잘 살피고, 외부 환경이 경쟁적이거나 과업지향성이 강할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도형 (ET)은 과업지향적 경향성이 두드러지며 행동력이 강한 외향성으로 비인격적 대상이나 활동, 경쟁적 목표에 대한 매력을 강하게 느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에는 인간관계보다는 목표와 과업지향적 행동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의과대학 학생의 독특한 특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이들이 향후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할 때 환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병의 치료에만 주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 행동 유형을 인지하도록 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과대학생의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인관계 행동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UC Irvine 의과대학에서는 ‘The art of doctoring’이라는 수업을 3, 4학년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으로 제시하여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기술, 환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능력, 환자에 대한 이타심과 공감을 증진시키기, 환자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가지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할극,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들이 현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읽기, 현장 관찰, 사례 중심의 문제 중심 교수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Shapiro *et al.*, 2006). Harvard 대학에서도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러한 기술이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Rider, 200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예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학교육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징은 학생들의 학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내향성 (I)의 경우 집중력이 강하고 반성적 사고를 좋아하는 목표지향적인 학습유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주제들을 통합하거나 관련 짓도록 하는 학습 틀을 만들어 주거나 관련짓는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내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소그룹 토의 수업이 점차 강조되는 최근의 의학교육 경향을 고려할 경우, 학생들의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 행동유형을 소규모 조별 구성이나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때 고려하도록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의과대학은 분석형 (IT)과 주도형 (ET)의 학생들이 약 80%를 차지하며, 매우 경쟁적인 환경이므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우호형 (IF)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BTI의 모든 성격유형은 모든 의학 전공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의학은 모든 성격유형의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문이며 직업이다 (Kim *et al.*, 2005). 의과대학 학생에서 특정 대인관계 행동유형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소수의 우호형 (IF)은 집단에서 소외되고 정서적으로 부정적 상태를 쉽게 경험하게 된다. 최근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에서는

모든 의과대학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의과대학생의 생활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여러 대인관계 문제에서 적절한 지도와 중재를 해야 한다. 의과대학생에게 미리 성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수의 우호형 (IF)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도를 한다면 대인관계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집단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은 성격유형검사의 특징지표에서 많은 분포를 보이며, 성격유형과 관련하여 대인관계 문제 특성에서도 몇 가지 특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과대학 학생의 특정한 성격유형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의과대학 학생들의 성격과 대인관계 문제 특성을 고려한 대학에서의 적절한 중재, 학생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바람직한 대인관계 행동을 학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표본 수와 연구대상으로 인한 일반화가능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 표본 수의 확대,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등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Chickering, A.W., & Reisser, L.(1993). *Education and identity(2nd ed.)*. Sanfrancisco: Jossey-Bass
- Day, M., & Baston, T.(1995). *The network-based writing classroom*. In Z. L. Berge and M. P. Collins (ed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the online classroom, Volume II: Higher education. Hampton Press, Cresskill, NJ, 25-46.
- Ellis, A.(2003). Personality type and participation in networked learning environments. *Education Media International*, 40(1), ISSN 0952-3987 print, ISSN 1469-5790 online, Routledge.
- Hammer, A.L.(1996). *MBTI application: A decade of research o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orowitz, L.M.(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a: A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 Horowitz, L.M., Rosenberg, S.E., Baer, B.A., Ureno, G., & Villasenor, V.S.(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556-564.
- Horowitz, L.M., & Vitkus. J.(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43-469.
- Hwang, S.S.(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MBTI (Myers and Briggs Type Indicator) basic program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cience major students and their cohe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18(1), 61-73.
- Kiesler, D.J.(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 Kim, J.T., & Sim, H.S.(1987). Sixteen personality type of the MBTI: Test of personality preference.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Kim, J.T., Sim, H.S., & Je, S.B.(1995).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BTI.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Kim, S.(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tudy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1(2), 271-284.
- Kim, S., Kim, J.H., & Hur, Y.R.(2005).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7(2), 107-119.
- Kim, Y.H., Jin, Y.G., Jo, Y.R., Gwon, J.H., Hong, S.H., & Park, E.Y.(2002).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eoul: Hakjisa.
- Kwon, Y.H., & Kim, J.N.(2002). Effects of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2), 216-229.
- Leary, 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 Lee, K.H.(1999). A study on personality type and characters of university students by means of MBTI and KPDI according to their majo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1), 279-305.
- Lim, S.H.(2002). Behavioral typology: An experimental study for establishing personality typology focused on interpersonal domai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4(3), 705-723.
- Molidor J. B.(2002). *Here's what I think & feel: Advising medical students on their career plann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Human Medicine-Flint Campus. (http://www.msufame.msu.edu/downloads/career_planning/workbooks/advising.pdf)
- Myers I. B., & McCaulley M. H.(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cal Press.
- Orford, J.(1986). The rules of interpersonal complementarity: Does hostility beget hostility and dominance, submission? *Psychological Review*, 93, 365-377.
- Rider, E.A.(2006). A model for communication skills assessment across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Medical Teacher*, 28(5), e127-e134.
- Shapiro, J., Rucker, L., & Robitshek, D.(2006). Teaching the art of doctoring: An innovative medical student elective. *Medical Teacher*, 28(1), 30-35.
- Sullivan, H.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allick, M.M. & Cambre K.M.(1999). Personality types in academic medicine. *The Journal of the Louisiana State Medical Society*, 151(7), 378-383.
- Wiggins, J.S.(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5-412.
- Wiggins, J.S.(1982). *Circumplex models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clinical psychology*. In Kendall, P. C., & Butcher, J. N.(Ed.).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clinical psychology*(pp.183-221). New York: Wiley.
- Wiggins, J.S.(1995).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